

# 중국 고전시에 나타난 매화 묘사 분석\*

배다니엘\*\*

## 目 录

- I. 서론
- II. 중국 고전시에 나타난 매화 묘사
  - 1. 봄의 서막을 여는 전형
  - 2. 고운 자태와 청아한 향기의 소유자
  - 3. 추위나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절개의 표상
  - 4. 청고한 고독과 비애의 상징
- III. 결어

## 1. 서론

‘매화나무(학명 *Prunus mume* S. et Z.)’는 장미과 벚나무속의 낙엽활엽수로 높이 5m 정도에 달한다. 매화나무 꽃은 매화, 열매는 梅實이라고 하는데 꽃을 강조하면 매화나무, 열매를 강조하면 매실나무로도 부른다. 매화는 이른 봄의 추위를 무릅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기에 四君子 중 봄을 대표하는 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姜希顔은 『養花小錄』의 ‘花木九等品論’에서 제1품으로 분류하였고, 중국에서도 ‘10대 名花’에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도 으뜸의 의미인 ‘花中之魁’ 혹은 ‘花魁’로 불리고 있다.<sup>1)</sup>

\* 이 논문은 2017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글로벌지역문화학과 중국지역 전공 교수.

1) 중국에서 ‘十大名花’로 일컬어지는 꽃들은 다음과 같다. 1. 花中之魁—梅花, 2. 花中之王—牡丹花, 3. 凌霜綻妍—菊花, 4. 王者之香—蘭花, 5. 花中皇后—月季, 6. 繁花似錦—杜鵑, 7. 花中嬌客—茶花, 8. 君子之花—荷花, 9. 十里飄香—桂花, 10. 凌波仙子—水仙 등이다. 이 중 梅花는 中國十大名花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힌다.

매화의 종류는 붉은색의 홍매와 흰색의 백매가 가장 많지만 역대 문헌을 통해 옛날부터 다양한 매화 종류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六朝時代 『西京雜記』에 “漢나라 초기에 상림원을 보수할 때에 여러 신하들이 각각 이름난 과실을 바쳤는데 候梅, 朱梅, 紫花梅, 同心梅, 紫蒂梅, 燕芷梅, 麗友梅 등이 있었다.(漢初, 修上林苑, 君臣各獻名果, 有候梅, 朱梅, 紫花梅, 同心梅, 紫蒂梅, 燕芷梅, 麗友梅.)”라는 기록을 통해 일찍부터 다양한 매화 수종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宋代까지 매화에 관한 기록을 모두 정리한 范成大의 『梅譜』를 통해 매화의 특징이나 종류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sup>2)</sup>

『詩經小雅』「四月」 편의 “산에 아름다운 초목이 있으니, 밤과 매화로서다.(山有嘉栻, 侯栗侯梅.)”는 언급은 매화가 오래 전부터 아름다운 화목의 이미지를 소유한 꽃임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중국 고전문헌을 보면 매화보다 매실이 주로 언급되다가<sup>3)</sup> 六朝時代를 지나면서 鮑照의 “생각하건대 서리 속에서도 꽃

2) 매화의 종류 중 몇 가지만 소개하면, 재배나 접목을 하지 않은 것을 ‘直脚梅’, 동지 전에 피는 것을 ‘早梅’, 둥글고 작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消梅’, 가지가 굵은 데다 푸른 이끼가 비늘처럼 피쳐 있으며 이끼와 가지 사이에 수염처럼 드리워져 있는 ‘古梅’, 꽃 봉오리가 풍성하고 이파리가 층지고 겹쳐 있는 ‘重葉梅’, 꽃받침이나 꼭지가 다른 매화처럼 자색이 아니라 순록색이며 가지와 줄기도 푸른 ‘綠萼梅’, 열매가 작고 가지가 조밀한 ‘白葉細梅’ 혹은 ‘千葉雙梅’, 빛이 분홍이고 무성하고 조밀한 것이 살구와 같고 향기도 살구와 같은 ‘紅梅’, 홍매에 비해 꽃빛이 조금 옅고 열매가 납작한 ‘杏梅花’, 매화와 같은 종류는 아닌데 매화와 같은 때 꽃이 피고 향기도 매화와 흡사하며 밀초와 같은 ‘臘梅’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매화 수종이 있다. 특히 한겨울에 피는 매화는 그 기질이 매우 출중하다 하여 ‘雪中梅’, ‘冬梅’, ‘寒梅’라고 별도로 칭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후 관계상 ‘冬梅’가 없고 ‘春梅’ 뿐인데 주로 ‘單葉白梅’ 종류로 열매가 많지는 않으나 맑은 향기가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중국 양자강 이남지역에서는 매화를 음력 2월에 볼 수 있기에 음력 2월을 ‘梅見月’이라 부르기도 한다. 매화의 종류, 재배 방법, 매화에 대한 문화적 해석이 다양한 것은 전통적으로 매화를 애호했던 의식과 문화가 얼마나 성행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3) 『書經』「說命」에 “만약 술과 단술을 빚을 것 같으면 그대가 누룩이 되어주고, 잘 조화된 국물을 만들려면 그대가 소금에 절인 매실이 되어주오.(若作酒醴, 爾惟麴蘖, 若作和羹, 爾惟鹽梅.)”라고 하여 국을 만들 때 ‘鹽梅’로 조절하듯 정치도 잘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詩經』「國風召南」「標有梅」 편에 “가지에서 떨어지는 매실 남은 것은 일곱 개, 나를 바라는 도련님이여 어서 이 좋은 때를 택하시오.(標有梅, 其實七兮. 求我庶士,

피울 수 있고, 이슬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念其霜中能作花, 露中能作實.)”(「梅花落」(매화꽃 떨어지고)), 南朝 陸凱의 “매화 꺾어 역사를 만나, 농두 사람에게 부쳤네. 강남에서 가진 것이라곤 없어, 그저 매화가지 하나 보낸다네.(折梅逢驛使, 寄與隴頭人. 江南無所有, 聊贈一枝春.)”(「贈范曄」(범염에게 주다)) 등을 비롯하여 일부 시인의 작품 속에 보이다가 唐代를 지나면서 점차 문인들에게 환영받는 창작소재가 되었고 꽃 애호의 풍조가 보편화된 宋代에 이르게 되자 매화를 노래한 ‘詠梅詩’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sup>4)</sup>

매화를 소재로 한 역대 고전시 작품은 매우 많으며 매화시에 대한 중국에서의 연구도 폭 넓게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서도 중국 매화시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한정된 인물이나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아 다소 산발적인 느낌을 준다. 매화시의 지명도나 중요도에 맞게 총체적인 조망과 정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다.<sup>5)</sup> 중국

迨其吉兮.”라는 표현을 통해 매실이 떨어지는 모습을 청춘이 가는 것으로 연상하여, 시기를 놓치지 말고 결혼을 하게 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世說新語』에는 중국 삼국시대 魏나라의 曹操가 대군을 거느리고 출병하던 중 군사들이 몹시 피로하고 갈증을 느꼈을 때 “저 산을 넘으면 큰 매화나무 숲이 있다. 거기서 열매를 따 먹자”라고 외침으로써 군졸들로 하여금 매실을 생각하여 입안에 침이 돌게 하였다는 ‘梅林止渴’ 고사가 실려 있는데 이 역시매실의 효용을 드러내는 일화가 된다.

- 4) 程杰, 「宋代詠梅文學的盛況及其原因與意義(上)」, (陰山學刊 第15卷 第1期, 2002, 2.)과 榮斌, 「一代詠梅成正聲 - 論宋代詠梅詩詞創作熱」, (東岳論叢 第24卷 第1期, 2003, 1.) 등을 참조하면, 『詩經』(305수 중 詠梅詩는 5수)과 先秦漢魏晉南北朝詩(전체 10,500수 중 26수)를 통해 선진시대부터 남북조시대까지 매화가 제재가 된 문학작품과 詠梅詩는 전체 문학작품 중 약 0.28% 정도이고, 『全唐詩』(48,900여수 중 84수)와 『全唐詩補編』(5,210여수 중 6수)과 『全唐五代詞』(2,849수 중 2수)를 통해 唐代 詠梅詩詞는 唐代詩詞 중 약 0.16%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宋代로 오면서 詠梅詩詞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全宋詩』(254,000여수 중 4,700여수)와 『全宋詞』(21,085수 중 1,200여수)를 보면 宋代 詠梅詩詞는 전체 宋代詩詞 중 약 2.14%에 달하고 있다. 宋代로 오면서 詠梅詩詞가 이전대보다 약 48배 정도 많아진 것이다.(노은정, 「南宋 四大家 詠梅詩 研究」, (중국어문학논집, 제39호, 2006. 8. 인용)
- 5)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중국 매화시 연구는 주로 특정 시기나 시인의 매화시 연구, 각종 문헌에 등장한 매화의 상징성 등을 고찰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매화시

매화시는 워낙 방대한 편수를 지녔기에 전체를 조망하기가 쉽지 않지만 통시적인 관점으로 조망하면서 각 시대별 매화시의 특징, 매화의 상징성, 문학적 의미와 효용성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고는 이상의 연구방향 중 중국 매화시에 담긴 작가의식과 상징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매화시 작품의 개인적 특색이나 시대별 특징을 파악하고 문학적 의의를 정의하는데 있어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II. 중국 고전시에 나타난 매화 묘사

매화는 상징의 폭이 다양한 꽃이며 중국 매화시에 반영된 의미 역시 다양했다. 고전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매화는 맹위를 떨치는 겨울 추위에 인내로 맞서는 세한의 상징,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력을 이어가는 불굴의 기개, 수려한 미모를 지닌 미인, 세속의 유혹을 초월한 고고한 자태, 계절의 도래를 알리는 새봄의 전령사, 맑고 은은한 향기를 발하는 인격체,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의 표상 등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에 관한 국내 주요 논문으로는 노은정, 「南宋 四大家 詠梅詩 研究」, (중국어문학논집, 제39호, 2006. 8), 우재호, 권영해, 「唐代 매화시에 나타난 매화의 상징성」, (중국어문학 제61집, 2012. 12) 이해원, 「歷代 詠梅詩詞에 나타난 매화의 상징의미 연구」, (중국학논총 제15권, 2003), 이주현, 「쓰러진 군자-徐渭의 그림과 시에 나타난 매화와 대나무」, (중국문학 제82집, 2015), 이호신, 「매화 그 은둔의 기상을 찾아서」, (숲과 문화, 제10권 2호, 2001), 장영록, 「高適과 梅花」, (숲과 문화, 제17권, 2008) 등이 있다. 이 중 매화의 상징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연구로는 우재호, 권영해의 「唐代 매화시에 나타난 매화의 상징성」, 이해원, 「歷代 詠梅詩詞에 나타난 매화의 상징의미 연구」 등이 있는데 우재호의 논문은 唐詩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 조대에 국한된 느낌이고, 이해원의 논문은 역대 詠梅詩詞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조망을 가하고 있으나 詩歌와 詞에서의 표현이나 상징성이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다. 그밖에 노은정, 이주현, 장영록 등의 연구는 특정 시인이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매화에 대한 언급이라 주제가 한층 편중된 느낌을 받게 된다.

매화를 노래한 여러 시가 중에서도 매화가 지닌 성품, 매화의 자태와 향기, 매화가 유발하는 이채로운 정서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관된 작품들을 분석해봄으로써 그 특징들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 1. 봄의 서막을 여는 전령

‘매화’는 매서운 겨울 추위를 온몸으로 인내하며 기다림의 미학을 간직하다가 다른 꽃에 앞서 꽃망울을 피워내며 봄의 도래를 알리는 꽃이다. 매화는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특성을 지닌 봄꽃 중에서도 다른 꽃보다 일찍 개화하기에 ‘꽃의 우두머리’라는 뜻의 ‘화괴(花魁)’라는 별명도 얻고 있다. 중국 고전시에서는 매화의 여러 형상 중 눈 속에서 피기 시작하는 ‘早梅’, 음력 12월에 노랗게 피어나는 ‘黃臘梅’ 등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으니 매화의 이른 개화가 봄을 선도한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sup>6)</sup> 봄의 도래를 갈망하는 세인들에게 새롭게 몽우리를 선보이는 매화의 모습은 희망의 상징과도 같이 느껴졌을 것이다. 비탄의 겨울을 이겨내고 새봄의 도래를 알리는 전령으로 매화를 묘사한 작품을 몇 수 살펴보기로 한다.

겨울인 듯 했는데 어느새 꽃을 피워낸 매화의 자태를 주목한 唐代 張謂의 작품을 보자.

「早梅」(조매)

一樹寒梅白玉條 백옥 같은 가지를 지닌 한 그루 한매  
 迥臨林村傍溪橋 멀리 마을길을 향한 시냇가 다리 옆에 서 있네  
 不知近水花先發 바로 옆 시냇물 가에 꽃이 먼저 피어난 것도 모르고  
 疑是經春雪未銷 봄이 왔어도 눈이 아직 녹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네

6) 「早梅」시제를 통해 매화가 봄의 도래를 알리는 꽃인 것을 밝혀놓은 작품이 많다. 일례로 『全唐詩』에는 「早梅」를 시제로 한 작품이 19수에 달한다. 「早梅」를 시제로 한 시가는 눈 속에서 피어나는 매화를 통해 새봄을 이끄는 매화의 속성이나 세한을 견뎌내는 성품을 노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차가운 겨울을 지내면서 눈도 녹지 않고 못 꽃들이 아직 피어나지 않았을 때 백옥 같은 가지를 지닌 매화가 다리 옆에 서있다. 하얗게 핀 매화의 색깔이 눈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기에 꽃을 피웠음에도 사람들은 눈이 아직 녹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는 설정을 통해 그 자태를 신비롭게 묘사하고 있다.

唐代 齊己도 「早梅」라는 시제를 활용하여 매화가 봄의 도래를 선도하는 품성을 지녔음을 노래한 바 있다.

「早梅」(조매)

萬木凍欲折 온갖 나무가 얼어서 꺾어질 지경인데  
孤根暖獨回 외로운 매화 뿌리만 온기 품고 돌아왔네  
前村深雪裏 앞마을 깊이 쌓인 눈 더미 속에서  
昨夜一枝開 어젯밤 가지 하나에 꽃을 피워냈네  
風遞幽香去 바람은 그윽한 향기를 실어 나르고  
禽窺素艷來 새는 희고 고운 꽃을 엿보러 오네  
明年猶應律 내년에도 여전히 절기를 맞추어  
先發映春臺 일찍이 피어나 봄 누대를 비추겠지

‘모든 나무(萬木)’가 눈과 추위로 인해 맥을 못 추지만 오직 ‘매화뿌리(孤根)’만 온기를 품었다가 매화꽃을 피워낸다. ‘온기를 품다(暖)’라는 표현을 통해 매화의 생명력과 활동력을 은유하고 있어 일종의 평안함도 느끼게 된다. “한 가지가 꽃을 피워냈다(一枝開)”라는 표현은 매화가 모든 꽃보다 먼저 피어나 눈과 당당히 맞선다는 인상을 주는 시어이며,<sup>7)</sup> ‘바람’과 ‘새’는 개화를

7) 『五代史補』에 의하면 본래 齊己는 “前村深雪裏, 昨夜數枝開.(앞마을 깊이 쌓인 눈 더미 속에, 어젯밤 여러 가지에 꽃을 피웠네.)”라고 하였는데 이를 본 鄭谷이 “여러 가지는 早梅가 아니다. 한 가지에 피었다는 표현처럼 아름답지 못하다.(數枝非早也, 未若一枝佳.)”라고 하자 齊己가 탄복하여 鄭谷을 ‘一字師’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劉鏞, 『詠花古詩欣賞』, (北京: 語文出版社, 1999.) 제9쪽 참조)

선도한 매화를 추종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 이 시를 齊己가 자신의 포부를 이해해 줄 지기들을 만나 꽃을 크게 피우길 기대하는 마음을 실은 시라고 볼 수도 있지만<sup>8)</sup> 꽃의 형상에 집중하여 보면 매화가 봄을 선도하는 외로운 전령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것을 일차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宋代 范仲淹은 눈과 서리의 괴롭힘에도 굴하지 않고 새봄을 알리는 매화의 정신을 칭송하는 시를 썼다.

「梅花」(매화)

蕭條臘後復春前    납월 뒤라 쓸쓸한데 아직 봄은 오지 않았고  
雪壓霜欺未放妍    눈의 짓누름과 서리의 괴롭힘에도 고운 모습 포기하지 않았네  
昨日倚闌枝上看    어제 난간에 기대어 가지 끝을 살펴보았더니  
似留春意入新年    봄뜻을 간직한 채 새해로 들어서려 하는구나

臘月을 보내고 아직 봄이 오기 직전의 쓸쓸한 상황 속에서 눈과 서리의 위세에도 고운 자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매화를 아끼는 시인은 가지 끝으로 시선을 돌리니 혹한을 이겨내고 새봄의 도래를 알리는 매화가 새로운 한 해의 전령 역할까지 하고 있다.

南宋의 楊萬里 역시 봄을 재촉하는 매화의 형상을 묘사한 바가 있다.

「正月三日驟暖多稼亭前梅花盛開 四首」其一 (정월 3일 갑자기 따스해진 날씨에 多稼亭 앞 매화가 만개하여 4수) 제1수

春被梅花抵死催    봄이 매화에게 바쁘게 재촉 받는구나  
今年春向去年回    올해도 봄이 작년처럼 돌아오라고  
春回十日梅初覺    봄이 돌아온 지 열흘 되니 매화도 처음 봄을 느끼고

8) 우재호, 권영해, 「唐代 매화시에 나타난 매화의 상징성」(중국어문학 제61집, 2012. 12) 중 齊己 「早梅」시 해설부분에서는 이 시를 齊己가 자신의 포부를 드러낸 시로 보고 있어 참조가 된다.

一夜商量一併開 하룻밤 새 의논이나 한 듯 함께 어우러져 피었다네

시가의 전반부에서 ‘봄’을 주체자로 내세웠지만 실제 봄을 움직이는 주인공은 매화라는 설정을 하고 있다.<sup>9)</sup> 주체와 객체의 도치, 반어적인 표현 등을 통해 매화가 봄을 재촉하는 존재임을 강조한 부분이다. 후반부에서는 봄의 도래에 따른 매화의 만개를 묘사하였는데 ‘봄을 처음 느낀다(初覺)’라는 표현을 통해 매화가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 발견된다.

매화는 24절기 중 ‘小寒’을 상징하는 꽃으로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의 도래를 기대하는 마음을 대변하는 꽃이다.<sup>10)</sup> 빙설이 가득한 한겨울에 봄소식을 알려 주는 매화는 세인들의 마음에 새롭게 약동하는 힘과 새 계절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오롯이 피어난 매화를 보면서 새로운 시절의 도래, 어려움의 종결, 새 희망에 대한 확신 등을 느끼게 되니 매화는 새봄을 대변하면서 각종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누구보다 잘 수행하는 꽃이라 할 수 있다.

## 2. 고운 자태와 청아한 향기의 소유자

매화는 흰 눈과 조화를 이루는 빙옥 같은 꽃을 통해 밝고 환한 시각적 기쁨을 제공하고 꽃술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를 통해 맑고 청아한 기운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매화는 흔히 진한 향기를 내뿜는 순결한 미인의 형상으로 묘사되곤 하였다. 처음 피어나는 매화는 눈과 비슷한 색의 꽃잎을 드러내므로 얼핏 눈과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고아한 향기를 발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만드는 특색도 갖고 있다. 매화 향은 ‘暗香’이라

9) 제1구의 ‘抵死’는 ‘힘을 다해, 바쁘게’라는 의미로 楊萬里가 시에서 즐겨 사용했던 속어로서(노은정 전개논문 해설 참조) 그만큼 매화가 봄을 선도하는 능력이 뛰어난 꽃임을 강조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10) 중국에서는 24절기마다 한 가지 꽃으로 風信을 삼은 ‘二十四番花信風’이 있는데 매화는 제23번째 ‘小寒’의 風信이다. ‘小寒’은 음력 12월이지만 冬至 이후 겨울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시기이기에 겨울의 쇠퇴와 새봄의 도래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이다. 매화를 ‘小寒’의 風信으로 정함으로써 봄의 서막을 갈망하는 의미를 싣고 있는 것이다.

하여 드러내지 않고 그윽한 기운을 전달하는 것으로 유명하기에 기품 있는 존재로 칭송받기에 충분한 매력을 지녔다. 자태 못지않게 그윽한 향기로 스스로의 격조를 높이는 꽃이니 역대 문인을 비롯하여 禪師들이나 道學家들이 매화를 특히 사랑했던 것은 이러한 특색과 무관하지 않다. 매화의 매력 중 고운 자태와 향기를 주목한 작품을 몇 수 살펴보기로 한다.

매화의 자태를 묘사한 작품 중 唐代 杜牧이 쓴 다음 시를 보면 形似, 像想, 典故 등 다양한 수법을 활용하여 매화의 매력을 부각시킨 면모가 발견된다.

「梅」(매화)

輕盈照溪水 매화는 시냇물에 산뜻한 모습을 그득 비추고 있고  
 掩斂下瑤臺 얼굴을 수줍게 가린 채 요대에 내려온 듯하네  
 妬雪聊相比 눈을 질투하여 언뜻 자태를 서로 비교하려는 듯  
 欺春不逐來 봄을 무시하고 따라오지 않았네  
 偶同佳客見 우연히 가객을 만나게 된다면  
 似爲凍醪開 겨울 내 숙성시킨 술대접하기 위해 피어난 것 같구나  
 若在秦樓畔 만약 秦穆公이 딸 弄玉을 위해 만들어 준 秦樓 옆에 피었다면  
 堪爲弄玉媒 가히 弄玉을 위해 蕭史를 중매시켜 줄 수 있으련만

시가 전반에 묘사된 매화는 신비로우면서 초월의미를 지닌 자태를 하고 있다. 매화는 수줍은 얼굴로 신선들이 사는 瑤臺에 내려온 것 같고, 秦穆公이 딸 弄玉을 위해 만들어 준 秦樓에 어울리는 형상을 하고 있다.<sup>11)</sup> 매화는 눈과 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봄을 선도하는 동시에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질

11) 漢 劉向『列仙傳』卷上「蕭史」에 “蕭史는 통소를 잘 불어 봉황을 울게 했다. 秦穆公이 딸 弄玉을 그에게 부인으로 주고, 鳳樓를 만들어주고 弄玉에게 통소 부는 것을 가르치게 했더니 감격한 봉황이 날아와 弄玉을 봉황에 태우고 蕭史를 용에 태워 부부가 함께 신선이 되게 했다.(蕭史善吹簫, 作鳳鳴. 秦穆公以女弄玉妻之, 作鳳樓, 教弄玉吹簫, 感鳳來集, 弄玉乘鳳, 蕭史乘龍, 夫婦同仙去.)”라는 고사가 있다. 매화가 지닌 신령한미를 부각시키기 위한 고사활용이라 할 수 있다.

투와 시샘도 마다하지 않는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알아주는 객을 만나게 되면 겨울 내내 숙성시킨 봄 술을 대접할 정도로 정겨운 감정을 지닌 존재이기도 하다.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태를 지닌 매화를 둘러싸고 여러 측면에서 다정다감한 장면을 연출한 것이 발견된다.

唐代 張籍은 다음 시에서 직접적으로 매화의 자태를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그 자취를 찾아가는 과정과 마음을 통해 각별한 애정을 표현한 바 있다.

「梅溪」(매화 핀 개울)

自愛新梅好 새로 피어난 매화가 좋아 스스로 아껴서  
行尋一徑斜 경사진 길을 따라 매화를 보러간다  
不教人掃石 사람들이 돌 위를 쓸어내리지 않기를  
恐損落來花 떨어져 흩날리는 매화 꽃 훼손될까 두렵나니

경사진 길을 마다 않고 매화를 찾아다니는 모습은 시인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매화를 좋아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후반부에서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매화가 낙화하는 슬픔과 안타까운 정을 서사하였다. 실제 상황 묘사에서 허구와 상상을 가미한 정경 묘사로 이어나가며 ‘虛實相合’의 묘미를 적절히 발휘한 묘사가 돋보인다.

매화시 중에는 매화의 자태보다 향기를 더욱 주목한 작품이 있다. 매화의暗香이 그만큼 가치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漢代 樂府詩 중 매화를 노래한 다음 시가 그 예이다.

「梅花」(매화)

庭前一樹梅 앞뜰의 한 그루 매화나무  
寒多未覺開 추위가 성한데도 매화는 어느새 피어나 있다네  
只言花似雪 그저 꽃이 눈처럼 희다고 말할 뿐  
不悟有香來 향이 피어나는 것은 깨닫지 못하나니

백화가 추위에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어느새 매화가 홀로 피어나 있다. ‘어느새 피어나 있다(未覺開)’는 말은 매화가 추위를 이겨내고 장엄하게 피었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고결한 품성을 지닌 것을 은유한 표현이다. 흰색 꽃의 자태가 환하게 눈에 들어오기에 사람들은 이 점을 주목하지만 사실은 매화가 풍기는 은은한 향기와 매화의 지순한 본성이 중요한 것임을 주지시키고 있다.

宋代 王安石 역시 매화의 향기를 통해 그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梅花」(매화)

牆角數枝梅 담장 구석에 있는 몇 그루 매화  
 凌寒獨自開 추위를 뚫고 홀로 꽃을 피웠네  
 遙知不是雪 그것이 눈이 아님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은  
 爲有暗香來 그윽한 향기가 풍겨 오기 때문이라

‘담장 구석(牆角)’, ‘홀로 피어 있다(獨自開)’ 등의 표현을 통해 매화가 지닌 고독한 정서를 느낄 수 있으나 그 속에는 ‘추위를 뚫고(凌寒)’ 피어나는 불굴의 기개가 담겨 있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 하얗게 핀 매화는 얼핏 눈과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자태를 지녔기에 ‘어렴풋이 안다(遙知)’고 하였으나 매화가 풍기는 그윽한 향기는 숨길 수 없는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평이한 시어를 사용하였으나 청신한 이미지를 창출해낸 수법은 매우 뛰어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매화를 노래한 작품을 보면 매화의 자태나 향기 한 면을 강조한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은 매화의 옥 같은 자태와 고아한 향기를 모두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태와 향기가 어느 꽃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매력을 지닌 매화이기에 자태와 향을 각각 분리하여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연유이다. 아름다운 모습 속에 그윽한 향기를 띤 매화의 형상을 주목한 작품 몇 수를 살

퍼본다. 宋代 陳與義는 눈 속에 달빛과 어우러진 채 향기롭게 피어있는 매화의 자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다.

「梅花」(매화)

客行滿山雪 나그네 온 산의 눈을 밟고 가는데  
香處是梅花 향기 나는 곳이 곧 매화 핀 곳이로구나  
丁寧明月夜 정녕 밝은 달 비치는 밤이면  
記取影橫斜 그림자 빗겨 있는 매화 모습 남겨보리라

전반부에서는 매화가 눈 속에서 피어나 향기를 발하는 모습을 그렸고, 후반부에서는 달빛 아래 빛나는 매화의 격조를 노래하였다. 눈과 매화의 색깔은 모두 흰색이라 얼핏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눈 속에서 발하는 매화의 향기를 부각하는 시상을 펼쳤고, 달밤을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하여 달 빛에 비친 매화와 그림자가 연출하는 명암의 대조를 주목하였다. 매화의 고결한 기품을 눈 속에 발하는 은은한 향기와 달빛 속에 비친 성근 가지로 형상화한 수법도 뛰어나다.

宋初에 매화를 아내 삼고 학을 아들로 삼아 西湖 孤山에 은거했다는 일화와 함께 매화시로 유명한 林逋의 다음 작품을 보자.

「山園小梅」(동산의 작은 매화)

衆芳搖落獨暄妍 모든 꽃 다 졌는데 홀로 곱게 피어나  
占盡風情向小園 아름다운 모습과 정취 다 하며 작은 동산을 이루고 있네  
疎影橫斜水清淺 성근 자태 비스듬히 비치는데 물은 맑고 얇아  
暗香浮動月黃昏 그윽한 향기 떠가는 중에 달빛은 황혼이로다  
霜禽欲下先偷眼 학은 내려앉기 전 먼저 이 꽃을 걸눈길해 보고  
粉蝶如知合斷魂 흰나비가 매화를 알아본다면 응당 녀이 나가리라  
幸有微吟可相狎 다행히 나직하게 시 읊조리며 서로 친할 수 있어

不須檀板共金尊 단목 악기와 금 술잔 모두 필요하지는 않다네

수연에서 ‘홀로 곱게 피어있다(獨暄妍)’라고 한 것은 추운 겨울에 모든 꽃들이 모두 사라진 현실에서 봄을 뚫고 꽃을 피워낸 절개를 주목한 것이며, 함연에서 ‘황혼의 달빛(月黃昏)’을 배경으로 삼은 것은 성근 자태를 하고 있는 앙상한 매화 가지가 달그림자에 비치는 모습에서 특별한 감흥을 느꼈기 때문이다. 은은하게 번져오는 ‘暗香’은 특별히 드러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고고한 인품을 의미한다. 달빛 아래 은은한 자태와 향기를 지닌 성근 매화 가지가 주는 운치가 남다르다.<sup>12)</sup> 엷은 꽃잎을 한 매화의 모습이 곱고 희기에 흰 새(학)와 흰나비는 착각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매화는 빼어난 자태와 기품, 고결한 향기를 지녔기에 시와 술로 벗하기에 충분하며 그 자체가 뛰어난 흥취를 발하기에 별도의 악기도 필요하지 않다는 칭찬을 가하고 있다. 매화를 감상하다 어느덧 매화와 혼연일체가 된 은자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宋代 朱淑貞은 黃梅의 자태, 향기, 품격 등을 전반적으로 관찰한 작품을 남기고 있다.

「詠梅」(매화를 노래하다)

雪格冰姿臘蒂紅 눈 같은 격조와 얼음 같은 자태의 납매는 붉으스레한데  
水邊山畔淡烟籠 물가와 산비탈에 열은 안개처럼 피어있네  
江風也似知人意 강바람은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차린 듯  
密遞清香到室中 매화의 맑은 향기를 몰래 집안으로 전해 주나니

12) 이 시의 함연 “疎影橫斜水清淺, 暗香浮動月黃昏” 구절은 五代 江爲의 殘句 “대나무 그림자 맑고 얇은 개울물 위로 비스듬히 드리우고, 계수 향기 황혼의 달빛 속에 번져온다.(竹影橫斜水清淺, 桂香浮動月黃昏.)” 구절을 차용하여 두 글자만 바꾼 것인데 여러 시인들에 의해 매화를 형용한 佳句로 칭송받게 되었다. 후대 매화 그림에도 단골 畫題가 되어 달과 함께 그린 ‘月梅圖’, 물가에 가지가 거꾸로 자라는 ‘倒垂梅’ 등 그림이 유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黃梅의 자태를 그리면서 노란 꽃 속에 비치는 암홍색을 강조하여 ‘紅’이라고 서술을 가한 것이 이채롭다. 물가와 산비탈을 두루 뒤덮고 있는 매화의 모습은 연기처럼 은근하며 몽롱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그 맑은 향기와 청아한 기운이 집안으로 퍼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몰래 전해준다(密遞)’라는 표현을 통해 쉽게 드러내지 않지만 고결한 지조를 숨길 수 없는 매화의 격조를 주목하였음을 밝혀 놓았다.

宋代 曾幾는 정원을 홀로 거닐면서 발견한 매화의 매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獨步小園」(작은 정원을 홀로 거닐며)

江梅落盡紅梅在 강가의 매화 다 졌는데 붉은 매화 남아 있고  
百葉細梅剩欲開 흰 잎을 띤 상매가 남아 피어나려 하는구나  
園里無人園外靜 정원 안에는 사람 없고 정원 밖도 고요한데  
暗香引得數蜂來 그윽한 향기가 벌들 몇 마리를 끌어들이고 있나니

작은 정원에서 시인 홀로 거니는 상황이지만 정원에는 ‘江梅’, ‘紅梅’, ‘細梅’ 등 여러 매화가 연이어 다채로운 정경을 연출하고 있고 暗香까지 그득하니 실제 느껴지는 서정은 한껏 풍성하다. 매화가 주는 매력으로 인해 고요한 중에도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다.

매화의 자태와 향기를 주목한 작품은 꽃 본연의 외관과 냄새를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진솔한 내용을 담은 기록이라 할 만하다. 흔히 꽃은 향기를 머금은 미인의 형상으로 의인화되는데 작품 속에서 매화의 자태를 묘사한 부분을 미인으로 치환하자면 그 형상은 구체적으로 가냘프고 야윈 모습에 눈처럼 희고 청순한 자태를 띤 미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sup>13)</sup> 날씬하고 야윈 몸매를 지닌

13) 매화가 시가에서 미인으로 의인화될 때 그 미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첫째, 몸은 몹시 가냘프고 야윈 모습이다. 한시에서는 흔히 瘦骨로 표현되고 있다. 둘째, 그 피부 색깔은 아주 희고 깨끗하다. 氷肌玉骨, 玉骨氷清, 雪膚 등의 표현이 그것이다. 셋째, 화장은 반드시 얇은 화장이다. 다만 홍매인 경우에는 홍장 또는 숙취의

‘玉骨’의 형상에서 눈과 추위에도 굴하지 않는 고고한 미인의 강단을 느끼게 되고, 얼음처럼 투명한 ‘氷玉’의 자태에서 맑고 깨끗한 순연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농염하지 않고 기품 있는 ‘暗香’ 역시 고결함과 순결함으로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는 매화 이미지에 잘 부합한다.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하게 퍼지는 매화 향은 담박한 운치를 상징하는데도 제격이다. 역대 문인들이 순결하고 기품 있는 미인을 형용함에 있어 매화만큼 적절한 꽃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은 매화만큼 강인한 성품과 빼어난 자태, 향기를 모두 소유한 꽃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 3. 추위나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절개의 표상

매화가 피어있는 경치나 정취는 계절을 불문하고 매력과 기품을 느끼게 한다. ‘氷玉’ 같은 자태는 맑고 투명한 깨달음을 얻게 하고, 눈과 추위와 싸우는 ‘寒梅’의 모습은 세상의 권세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군자의 지조나 절개를 연상케 한다. 매화가 역대 작품 속에서 중요한 제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추위와 싸우며 절개를 지켜내는 인내심과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다는 특징과 연관이 있다. 역대 문인들은 국가나 사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매화의 모습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고 자신의 의지를 설파하기 위해 매화의 절개나 성품을 칭송하기도 하였다. 절개와 지조가 으뜸인 매화는 고결한 품성을 표현하는데 있어 최적의 소재가 되는 꽃이라 할 수 있다. 매화가 추위나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절개의 상징, 굳은 의지의 형상 등으로 묘사된 작품을 예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宋代 辛棄疾은 매화를 보면서 굴원의 맑은 품성을 떠올린 바 있다.

모습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닳은 옷, 의복은 예외 없이 흰옷이다. 素服, 素態, 縞裙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白梅를 대상으로 한 표현이다. 다섯째, 미인의 몸에서 나는 맑은 향기가 발산된다.(이상희, 『매화』, (서울: 넥서스, 2002.) 제120쪽 참조)

「和傅巖叟梅花兩首」(부암수의 매화 시 두 수에 화답하여)

靈均恨不與同時 굴원은 안타깝게도 같은 시기에 함께하지 못했으니  
欲把幽香贈一枝 그윽한 향기 풍기는 매화가지 하나 전해주고 싶네  
堪入離騷文字否 감히 離騷 문장 속에 이 꽃을 끼워 넣을 수 있는지  
當年何事未相知 굴원이 살던 시기에는 어이하여 매화를 서로 몰랐던가

매화를 보며 그 옛날 屈原이 각종 향초로 자신을 비유하면서 한을 서사하던 일을 회고해본다. 屈原은 「離騷」를 비롯한 25수의 시에서 연꽃, 계수, 난초 등 각종 화초를 예거하며 군자의 품격을 논한 바 있는데 기이하게도 매화는 각종 언급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면서 「離騷」의 구절 중에 매화를 넣었다면 屈原의 인품을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리라는 상상을 해본다. 매화의 기품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屈原, 離騷 등과 결부할 만큼 매화가 높은 품격을 지닌 존재라는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宋代 范成大는 매화 중에서도 古梅가 지닌 연륜과 기질을 주목한 기술을 가하고 있다.

「古梅兩首」其一 (고매 두 수 중 제1수)

孤標元不鬥芳菲 고고한 격조를 지닌 매화 본래 다른 꽃과 향기를 다툴이 없고  
雨瘦風皴老更奇 비에 수척해지고 바람에 주름진 채 늙어가니 더욱 기이하거나  
壓倒嫩條千萬蕊 부드러운 줄기에 피어난 천 송이 만 송이 꽃을 압도하는 것은  
只消疏影兩三枝 그저 성근 그림자 사라진 매화꽃 가지 두 세 줄기라네

풍상을 맞아 늙어가며 수척하고 주름진 모습을 한 古梅<sup>14)</sup>지만 다른 화초들

14) ‘古梅’란 가지가 굵은 데다 푸른 이끼가 비늘처럼 번져있는 형상을 한 매화이다. 이끼가 가지 사이에 수염처럼 길게 드리워 바람이 불면 푸른 실이 나부끼는 것 같아 관찰 가치가 높으며 매화 기르는 사람에게는 가장 사랑받는 품종으로 여겨진다. 古梅를 만들기 위해서는 야생매를 과중한 대목에 重葉梅(꽃봉오리가 풍성하고 잎이 층지

과 다투지 않고도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높이고 있다. 비바람을 곳곳이 이겨 낸 그간의 세월이 연륜으로 쌓여 외모를 뛰어넘는 풍격을 지니게 된 것이다. 성근 그림자를 지닌 매화꽃 두 세 줄기가 천만 송이의 다른 꽃을 압도하는 모습에서 연륜을 소유한 노인이 지혜와 덕성으로 젊은이를 압도하는 것 같은 인상을 얻게 된다. 古梅의 품성을 의인화하여 서술하면서 교훈적인 지혜를 담고자 했던 작자의 기지가 느껴진다.

元代 薩都刺이 매화를 옮겨 심으면서 그 정신을 흡수하고자 했던 기록에서도 매화를 고상한 절조와 연계하였던 면모를 살필 수 있다.

「移梅」(매화를 옮겨 심으며)

幾夜幽香惱夢魂 몇 밤이고 그윽한 향기가 꿈에 나타났는지  
 殷勤來倩隴頭人 은근히 찾아와 이 북방 사람을 흔들어 대네  
 鑿開東閣窓前地 마당을 개척하여 동각을 짓고 앞뜰에 창을 내고  
 分得西湖雪裏春 서호 孤山의 매화를 얻어다 심네  
 瘦影翻來新體態 마른 자태가 변하여 새로운 자태를 띠게 되었으나  
 疏枝猶帶舊精神 성근 가지에는 아직 옛 정신이 남아 있도다  
 今朝伴我清吟處 오늘 아침 나와 벗하여 맑게 읊조리는 이곳에  
 不許詩懷更有塵 시 짓는 감성이 없다면 세속의 기운만 대신하겠지

매화는 향기를 통해 북방에서 향주로 내려 온 시인을 은근히 유혹하면서 그 기운을 전하고 있다. 창 앞에 서실을 지은 후 西湖에서 얻어와 심어놓은 매화는 이전보다 실해지고 새롭게 활기를 띤 모습인데 이는 매화를 감상하게 된 시인의 기쁨을 대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제4구에서 매화를 ‘雪裏春’이라 칭한 것은 눈 속에서도 의연히 봄을 피워내는 매화의 품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매화는 ‘瘦影’과 ‘疏枝’의 앙상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본래의 기품을

고 겹으로 나며, 활짝 피면 小白蓮과 같고 열매가 쌍으로 열리는 매화 품종)를 접목해야 한다.

있지 않고 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시인 역시 맑고 고결한 기운을 충만히 받게 되는 것이다.

明代 于謙은 매화의 자태와 정신을 모두 주목하면서 그 절개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 있다.

「和梅花百詠」(매화를 노래한 백 수의 시에 화답하여)

玉爲肌骨雪爲神 옥을 肌骨로 삼고 흰 눈을 정신으로 하였으니  
 近看龍葱遠更眞 가까이 볼 때 무성한 자태더니 멀리서 보매 더욱 확연해지네  
 水底影浮天際月 물속에 매화 그림자 떠 있는데 달은 하늘가에 걸려있고  
 樽前香遍酒闌人 술 잔 앞으로 향기 물려오는데 술은 나를 취하게 하네  
 松篁晚節應同操 소나무와 대나무의 의연한 절개는 응당 매화와 어울리고  
 桃李春風謾逐塵 도리는 봄바람에 속아 속세를 따라가네  
 馬上相逢情不盡 길 다니다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 정이 한 없어  
 一枝誰寄隴頭春 그 누가 가지하나 선물하여 북방 친구에게 봄을 알렸으면

매화는 옥 같은 외형과 눈 같이 맑은 정신을 지녔기에 그 자태가 고결하고 절조가 고상하다. 물속에 비긴 매화의 그림자와 하늘에 떠 있는 달, 그리고 그 속에 풍겨오는 향기는 나로 하여금 넉넉히 술 취하게 한다. 매화의 고상함은 松竹과 비견할 만하니 봄바람 따라 이리저리 날리는 세속의 桃李가 어찌 매화의 뜻을 알겠는가? 남방에서 매화의 서정에 취해있던 시인은 문득 북방 친구에게 매화 한 가지를 전함으로써 春意를 느끼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sup>15)</sup> 매화가 지닌 자태와 기질을 누군가와 나누면서 그 의식을 함께 소유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매화는 봄꽃의 선두주자라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을 만하지만 추위와

15) 미연의 ‘寄隴頭春’은 南朝 陸凱가 「贈范曄」(범엽에게 주다)에서 “매화 꺾어 역사를 만나, 농두 사람에게 부쳤네. 강남에서 가진 것이라곤 없어, 그저 매화가지 하나 보낸다네.(折梅逢驛使, 寄與隴頭人. 江南無所有, 聊贈一枝春.)”라고 한 내용에서 뜻을 취한 표현이다.

시련을 견뎌내는 인내력을 통해 불굴의 정신과 지조 있는 기품을 발휘하기도 한다. 매화는 은은한 향기처럼 맑은 기질을 내면에 소유하였기에 세간의 불의에도 굴하지 않고 홀로 절조를 지키는 강인함을 발휘할 수 있다. 세인들은 고결한 정신세계를 유지하고 싶을 때 흔히 세한에 홀로 피어나 맑은 영혼을 드러내는 매화의 기품을 떠올리곤 하였다. 어려운 시국을 살았던 志士는 물론이고 맑은 정신을 함양하고자 했던 禪師나 道學家들에게 있어 이 꽃은 절대적인 가치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환경에 굴하지 않는 매화의 형상에 자신의 마음을 기탁한 작품이 많은데 이 경우 시 속의 매화는 상당 부분 시인 자신의 의지를 투영하는 객체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4. 청고한 고독과 비애의 상징

매화는 깨끗하고 고아한 기품을 지녔으면서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선비의 의식을 선도하는 꽃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자신만의 올바른 길을 바꾸지 않는 고독한 자세를 표현하기에 매화만큼 적절한 꽃도 없다. 그러나 절개를 지키는 일이란 때로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역대 시가를 보면 때로 매화가 홀로 절조를 지키는 고독감이나 비애를 상징하는 대상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 지나긴 겨울을 이겨내야 하는 매화의 숙명은 현실에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소재로도 적절하다. 고독하거나 불우한 삶을 표현하는데 있어 매화의 형상은 좋은 거울이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역대 시가 중 매화를 통해 우수를 투영한 작품들을 몇 수 예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唐代 盧照隣은 매화 개화의 상징인 大庾嶺<sup>16)</sup>과 변세의 애잔함을 대비하면

16) 大庾嶺은 중국 5대 준령의 하나로 江西省 大庾縣 남쪽과 廣東省 南雄縣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漢 武帝 때 庾勝 형제가 南越을 정벌하고 이 嶺을 지킨 것에서 그 명칭이 유래한다. 江西와 廣東 사이에 있는 험난한 준령이라 이 고개를 관통하는 교통로의 건설이 필요하였다. 마침내 唐 玄宗 때 張九齡이 길을 관통하는 임무를 완성하고는 역로 변에 매화를 심어놓았다. 이후 大庾嶺은 唐나라 白居易와 宋나라 孔傳이 찬한 것을 합

서 매화가 주는 감흥과 현실의 아픔을 서술한 바 있다.

「橫吹曲辭梅花落」(횡취곡사·매화꽃 떨어지고)  
 梅嶺花初發 大庾嶺에 매화가 처음 피어났는데  
 天山雪未開 천산의 눈은 아직 녹지 않았네  
 雪處疑花滿 눈 있는 곳은 마치 매화가 만발한 듯하고  
 花邊似雪回 꽃이 핀 매화령에는 다시 눈이 내린 것 같겠구나  
 因風入舞袖 바람이 불어와 소매 자락을 흔들어대니  
 雜粉向妝臺 각종 꽃들도 여자들의 화장대 향해 날리네  
 匈奴幾萬里 남군은 몇 만 리 떨어져 흉노족과 대치하고 있으니  
 春至不知來 봄이 와도 온 줄을 모르는 도다

매화 개화의 분수령인 大庾嶺에는 매화가 피어났는데 멀리 변세의 天山에는 눈이 아직 녹지 않고 있다. “남쪽 가지에는 꽃이 피었는데 북쪽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았다(南枝開北枝未開)”라는 大庾嶺과 관계된 성어를 연상하게 한다. 함연에서 매화와 눈이 모두 흰 색깔을 띠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눈 쌓인 정경을 매화가 만발한 것에, 매화가 피어있는 모습을 눈 내린 것에 각각 교차하여 비유하였으니 그 수법이 정교하다. 눈과 매화의 융합과 합일을 도모하여 이루어낸 이미지인 셈이다. 봄바람과 함께 매화가 날리는 중에 강남 여

친 類書『白孔六帖』의 “大庾嶺의 매화는 남쪽 가지의 꽃은 이미 떨어졌는데 북쪽 가지의 꽃이 비로소 피기 시작하니 춥고 따뜻한 기후가 다르기 때문이다.(大庾嶺上梅花, 南枝已落, 北枝方開, 寒暖之候異也.)”라는 기록처럼 매화 개화의 분수령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게 되었다. 大庾嶺에는 매화가 많이 자라게 되었고 이 교통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매화를 사랑하여 大庾嶺을 ‘梅嶺’이라고도 불렀다. 五代 이후 대유령 역로가 점차 황폐되어가자 宋나라 文宗 연간에 蔡挺이 다시 고개 위에 관문을 열고 ‘梅關’이라는 표석을 세웠다. 唐代 李嶠가 「梅(매화)」의 첫 연에서 “대유령에 겨울 빛이 걸히고, 남쪽 가지에 홀로 꽃이 피었네(大庾斂寒光, 南枝獨早芳.)”라고 한 것을 위시하여 시인들에게 ‘大庾嶺’, ‘梅嶺’, ‘梅關’은 봄의 도래를 선도하는 매화를 상징하거나 혹은 혹한을 이겨내는 매화의 생동적인 의지를 상징하는 지명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인의 소매 자락이 훑날리는 모습은 문득 처연한 감정을 창출한다. 낭군은 멀리 떨어진 변세에서 흥노와 대치하고 있어 봄이 와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봄을 알리며 피어나는 매화는 현실의 슬픔을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된다.

宋代 蘇軾은 당쟁에서 맞본 비애감을 매화에 담아 다음과 같은 작품을 썼다.

「梅花兩首」其一 (매화 시 두 수 중 제1수)

春來幽谷水潺潺 봄이 오니 그윽한 계곡에 물이 졸졸 흐르고  
 的皪梅花草棘間 매화는 풀과 가지 사이에 환하게 피어 있네  
 一夜春風吹石裂 하룻밤 새 봄바람이 바위를 가르듯 맹렬히 불어  
 半隨風雪度關山 원치 않게 눈과 바람 따라 관산을 넘게 된 상황이라

이 시는 매화를 통해 자신의 처한 정치적 상황을 서술한 일종의 ‘政治詩’이다. 매화는 봄빛이 따스하고 개울이 흐르는 계곡에 피었다가 다시 풀과 가지가 많은 거친 곳에 피어있다고 하였다. 현재는 험난한 지경으로 이관된 처지임을 암유한 것이다. 하룻밤 새 봄바람이 맹렬히 불어 눈과 바람 따라 관산을 넘게 되었다는 언급은 외부의 힘에 의해 다른 곳으로 옮겨진 매화처럼 갑작스럽게 밀려나게 된 자신의 처지를 묘사한 것이다.<sup>17)</sup> 절개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뿌리 채 옮겨가게 되면 힘을 잃는 매화처럼 자신도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비유하였다. 매화를 들어 자신만이 느끼는 고독한 비애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宋代 惠洪은 시들어가는 매화의 모습을 통해 凋落의 슬픔을 표현하였다. 새봄의 서막을 알리는 매화의 강인한 이미지와 대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17) 이 시는 神宗이 王安石을 중용하여 변법을 시도할 때 蘇軾이 ‘烏臺詩案’으로 인해 체포되어 감옥에 가서 거의 죽을 뻔 하다가 간신히 免死하여 黃州로 폄적하게 된 상황을 은유한 것이다. 시어 중 ‘관산을 넘는다(度關山)’라는 말은 蘇軾이 폄적되어 黃州로 가는 도중 지나가게 된 麻城縣의 虎頭, 黃土, 木陵, 白沙, 大城 등 다섯 개의 關을 말한다.

작품이다.

「殘梅」(시들은 매화)

殘香和雪隔帘櫳 매화의 잔향은 눈과 함께 창 너머에 머무르며  
 只待江頭一笛風 그저 강가에서 불어오는 한 줄기 봄바람을 기다리네  
 今夜回廊無限意 오늘 밤 회랑에 무한한 뜻이 펼쳐지건만  
 小庭疎影月朦朧 작은 정원에 있는 성근 매화 그림자에는 달빛만 몽롱해라

창 너머 피어있는 매화가 아스라한 잔향을 지닌 채 눈 속에 흰 자태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강가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실제 상황은 여의치 않다. 수명을 다해 사라져 가는 매화의 성근 그림자를 보면서 무한한 생각에 빠져 보지만 현실은 몽롱한 달빛처럼 아득하기만 하다. 매화를 표현함에 있어 기존의 작품과는 달리 여성적인 어휘와 표현으로 연약한 이미지를 추가하고 있다.<sup>18)</sup> 자신만이 느끼는 서글픈 정감을 표현하는데 있어 매화의 청고한 이미지를 적절한 소재로 활용한 느낌이다.

살펴 본 몇 수의 시가는 매화를 통해 자신의 불우한 처지나 아쉬운 상황을 표현한 작품의 예이다. ‘早梅’는 봄을 선도하는 기질과 능력을 가졌지만 홀로 추위를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을 원천적으로 소유한 꽃이다.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녔으면서도 시기가 맞지 않거나 빼어난 절개로 인해 꺾박을 받을 때 시인은 더욱 고독함을 느끼게 된다. 의지와 환경이 대치를 이루는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 한다면 매화는 그 어느 꽃보다 적절한 소재가 될 수 있는 꽃이다. 몇몇 시인들은 고난을 이겨내는 매화의 모습에서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강인한 의지만큼 실의와 고독함이 상대적으로 컸을 때 매화는 더욱 큰 의미로 인식되는 존재였을 것이다.

18) 趙慧文, 『歷代詠花草詩詞選』, (北京: 學苑出版社, 2005.) 제390쪽 “景物描寫‘帘櫳’, ‘回廊’, ‘小庭’, ‘江頭’, ‘笛風’, ‘月朦朧’都富有一種女性的柔美, 對‘殘梅’起了很好的烘托作用, 恰切地表達了惜花主旨.” 참조.

### III. 결어

역대 시가에 나타난 매화의 특성을 봄의 서막을 여는 전령, 고운 자태와 청아한 향기의 소유자, 추위나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절개의 표상, 청고한 고독과 비애의 상징 등의 관점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꽃을 활용한 작품을 살펴볼 때 그 꽃이 갖고 있는 고유의 모습과 향기, 세인들에게 인식되는 이미지, 다른 꽃과 구별되는 그 꽃만의 장점이나 품성, 역대 문인들이 시가에서 활용한 양상 등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그 꽃에 대한 대략적인 조망이 가능하며 다른 꽃과 구별되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역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매화는 참으로 다양한 상징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어 몇 마디로 그 특성을 요약하기가 불가능하다. 폭 넓은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만큼 작품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창출하고 있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봄의 선도자, 그윽한 향기와 자태로 신선한 의식을 제공하는 자, 굳고 강인한 절개를 소유한 자라는 점에서 어느 식물보다 강렬한 특성과 이미지를 지닌 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매화의 조락을 슬퍼하거나 매화의 개화가 야기하는 감정을 부정적 측면에서 표현한 작품 속에 표현된 고독함 역시 상대적으로 강렬한 느낌을 제공한다. 세상이 나와는 상관없이 분주하게 돌아가며 매화도 흐드러지게 피어나 있을 때 시인은 때로 더욱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 이른바 ‘花中之魁’, ‘花魁’의 칭송에 걸 맞는 가치를 지닌 꽃이니 이 꽃이 지닌 지대한 영예만큼 느껴지는 상실감 역시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역대 시가의 소재 중 매화만큼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꽃이 별로 없었다는 점은 이 꽃이 지닌 의미나 가치를 생각하는데 있어 필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된다 하겠다.

## 參考文獻

- 『全唐詩』, 北京: 中華書局, 1960.
- 趙慧文, 『歷代詠花草詩詞選』, 北京: 學苑出版社, 2005.
- 劉 鈞, 『詠花古詩欣賞』, 北京: 語文出版社, 1999.
- 徐擘春, 『觀花植物千種經典圖鑑』, 吉林: 吉林出版集團, 2012. 11.
- 金 波, 『花卉寶典』, 北京: 中國農業出版社, 2006. 1.
- 王 辰, 『桃之夭夭』, 北京: 常務印書館, 2015. 7.
- 기태완, 『花情漫筆』, 서울: 고요아침, 2007.
- 기태완, 『꽃, 들여다보다』, 서울: 푸른지식, 2012.
- 손광성, 『나의 꽃 문화 산책』, 서울: 을유문화사, 1996.
- 강관권, 『나무열전』, 과주: 술향아리, 2007. 8.
- 박경하, 『우리나라 나무이야기』, 서울: 이비락, 2004. 3.
- 손광성, 『나의 꽃 문화 산책』, 서울: 을유문화사, 1996.
- 강희안 저, 이종묵 역, 『養花小錄』, 서울: 아카넷, 2012. 12.
- 程 杰, 「論中國文學中杏花意象」, 『江海學刊』, 2009. 1.
- 程 杰, 「梅花意象及其象徵意義的發生」, 南京師大學報, 1998. 제4기.
- 程 杰, 「宋代詠梅文學的盛況及其原因與意義(上)」, 陰山學刊 第15卷 第1期, 2002, 2.
- 榮 斌, 「一代詠梅成正聲 - 論宋代詠梅詩詞創作熱」, 東岳論叢 第24卷 第1期, 2003, 1.
- 노은정, 「南宋 四大家 詠梅詩 研究」, 중국어문학논집, 제39호, 2006. 8
- 우재호, 권영해, 「唐代 매화시에 나타난 매화의 상징성」, 중국어문학 제61집, 2012. 12.
- 이해원, 「歷代 詠梅詩詞에 나타난 매화의 상징의미 연구」, 중국학논총 제15권, 2003.
- 이주현, 「쓰러진 군자-徐渭의 그림과 시에 나타난 매화와 대나무」, 중국문학 제 82집, 2015.
- 이호신, 「매화 그 은둔의 기상을 찾아서」, 숲과 문화, 제10권 2호, 2001.
- 장영록, 「高適과 梅花」, 숲과 문화, 제17권, 2008.

## Abstract

A study on the various symbols of Plum blossom in Ancient Chinese poetry

Bae, Daniel

This article was written to study the various symbols of Plum blossom in Ancient Chinese poetry. The various symbols of Plum blossom in Ancient Chinese poetry are summarized as that :

The first, the Plum blossom is the messenger who opens the prelude of spring. Among the spring flowers, the Plum blossom earlier the other flowers, and it is getting the nickname of 'the head of flowers'. Many poetry of Plum blossoms are generally expressed the symbol of the beginning of spring.

The second, the Plum blossom is the owner of fine figure and clean scent, and also expressed as the symbol of fascinating beauty. This attribute of Plum blossom well beloved by all the people and many poets represented the special beauty in their expression.

The third, the Plum blossom is the representation of the incision that does not give in to the cold or the trial, also very often used of the expression of strong vitality or a firm will. When poets wanted to maintain a noble spiritual world, they often reminded themselves of the dignity of plum blossoms that reveal their souls alone, blooming alone in the cold whether.

The fourth, the Plum blossom often used as the symbol of the lonely solitude and the sorrow. Keeping an incision sometimes means going solitary and lonely. There are many cases where Plum blossoms are sometimes expressed as an object symbolizing loneliness or sadness.

**Key words** : Plum blossom, Symbols in poetry of Plum blossom the expression of flowers, Sense of beauty, Ancient Chinese poetry, flower.

투 고 일 : 2017. 10. 10. / 심 사 일 : 2017. 10. 15.~ 2017. 11. 15. / 게재확정일 : 2017. 11. 20.